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11 • 11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이미 떠나버렸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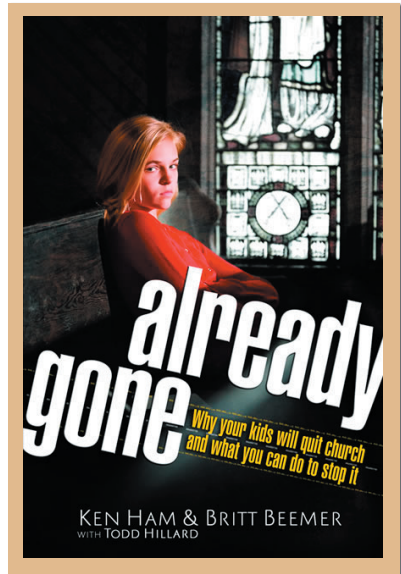
무의미로 내달린 길

자신에게 성경이나 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미 떠나 버렸다. 이미 발표 된 통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 20대의 경우 교회 참석자가 약 6%이고 이 숫자의 2 배인 약 12%는 주일학교에 다니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들에게 교회는 의미나 관련성(relevance)이 없거나 성경이 사실(real)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주와 생명의 창조, 인류의 처음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들의 타락에 이은 죽음 등 성경 기록이 사실이어야 한다.

수백만년의 지구 역사의 수용

그런데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과학계가 수백만년(지금은 수십억년)의 긴 지구 역사를 받아 드리지라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을 받아드려 창조 하루를 긴 시간 혹은 간격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수백만년을 옹호하게 되자 화석을 만든 퇴적물들이 노아홍수가 아니며, 성경의 권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과학적인 정당성이 세워 진 것이다. 결국 수백만년은 성경의 창조 기사와 화석 층과 상관된 노아홍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 오래 된 지구는 성경과 위배 될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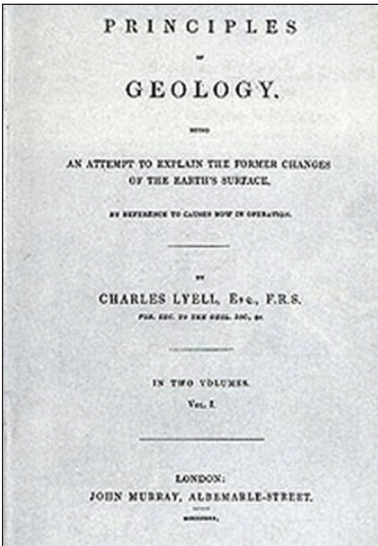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여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들의 존재는 자연 과정의 결과일 뿐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이 가능하게 하였다.

교회가 수십억년과 타협하자 다음 세대는 불신의 미끄럼틀을 탔다. 수십억 년은 창조 기사만 해친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를 전 지구적인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고 지역적인 홍수로 만들었다. 다윈이 저술한 1859년의 《종의 기원》과 12년 뒤에 그가 쓴 《인간의 계보 The Descent of Man》는 동물의 진화와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생각이 인기를 얻게 하였고 영국의 많은 교회들은 다윈의 사상을 받아들이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재해석하게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써서 생명체들을 만드셨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타나게 하였다.

수백만년을 주장하여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공격의 시발점이 된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 1830>

이런 관점이 미국 교회에도 들어 와 성경 기사들이 재해석 되었는데,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수십억년만 받아드리고 진화는 부정하는 간격이론을 만들었다. 또,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도 진화와 수십억년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수십억년의 문제는 회피하면서 창세기는 진실하다고만 가르쳤다. 창조, 홍수, 바벨탑 등은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들로만 학생들에게 가르쳐 진 것이다.



이 때부터 과학이 성경과 분리되어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창세기 1-11 장의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 지질학적인 역사 등)을 포기하고 하늘에 관한 것들(영적인 문제들, 영적 관계들,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에 대해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 따르게 되었다. 이 때부터 성경으로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성경과 과학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날-시대 이론이나 간격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 타협 이론들은 과학도 성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타협이 가져 온 정말로 중대한 사함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형상인 완전한 사람의 타락과 쇠퇴 그리고 죽

음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필요 없게 만든다. 진화론은 미세한 세포가 점점 발달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완전히 거꾸로 말한다. 불완전한 것이 점점 완전해 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기독교를 타락이 없었는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다.

믿음과 실생활의 분리

과거 파스칼, 뉴턴, 갈릴레오 등의 과학자들은 동시에 잘 훈련 된 신학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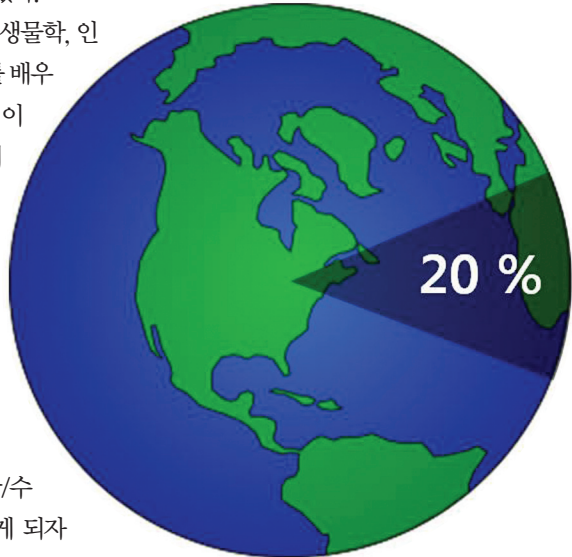
있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 실험실과 예배당이 연결점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의 기원에 대한 과학(역사 혹은 기원과학)이 현미경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전자 제품을 개발하는 실험과학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역사(기원)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양보하자 실제적인 세상(real world)은 성경과 분리되어 버렸다.

요즘 미국에서 아이들이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천문학 등 우주의 실제 역사를 배우려고 어디에 가는가? 학교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학생들은 실제 세상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그들은 교회에서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정 이야기 같은 영적인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곳이 되어 성경은 우리 문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유럽 교회에서 진화론과 수백만/수 십억년이 점점 환영 받고 우대 받게 되자 자연히 성경은 실제 세상의 문제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에게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100년도 안 되는 3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실제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대 단절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인들은 성경과 성경의 메시지인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유럽과 똑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매우 가까이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버렸다.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다른 가정(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교도의 세상이다. 상관 없다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창조자이자 구원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똑 같은 질문(요3:12)에 대답을 해야 한다. “성경에 기록 된 세상 일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 된 영적인 것들은 무슨 근거로 신뢰할 수 있을까?” 영국, 유럽, 미국 아니 서구의 전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세상으로부터 성경을 분리해 버렸다.

미국 교회도 우주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세속적인 학교에 다 넘겨 버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교회가 실제 세상에서 성경을 분리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 교리, 도덕, 영적인 문제들만 교회에서 배우고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인류학의 역사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있다. 그러나 세상 학교에서는 이런 분야를 성경과 완전히 반대 되게 가르치니 성경의 창조, 노아홍수, 바벨탑들이 사실로 믿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의심의 문이 된 지구 나이: 성경이 암시하는 1만년 이하의 지구 나이를 믿는 20대는 20 % 미만이다.



© 2006 Answers in Genesis

이런 전염병이 퍼지자 이 세대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쫓아져 나간다. 우리는 텅 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세대와 불과 한 세대 건너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주일날 하얗게 썬 머리를 하고 긴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남겨진 신자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말이 이 현실을 잘 정리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천 나라일 수 없다. 우리는 유테인의 나라이기도 하고, 무슬림의 나라이기도 하고, 불교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힌두교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무신론자들의 나라이기도 하다.”¹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의심

교회를 떠난 20대들을 조사한 이번 결과는 세상이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의심하는 시작임을 말해 주고 있다. 77%는 노아방주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고, 75%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믿으며, 62%는 아브라함이 이사를 100 세에 낳았음을 믿고, 60%는 바벨탑 사건 등의 성경 기록을 믿는다고 답변 하였다. 그러나 불과 20%만이 지구는 1만 년 이내라고 믿는다고 답변 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을 틀렸다고 확인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과학에 백기를 들었다. 수많은 유명한 기독교 학자들, 교수들, 전도자들 등은 성경과 수십억년을 타협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고의든 아니든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공격

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만 받아 드리면 수십억년은 중요하지 않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복음 메시지도 역시 창세기의 역사가 기록 된 성경에서 온다. 어떤 사람이 수십억년 혹은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창조의 날들을 긴 기간이라고 재해석 하면 복음의 신실함을 담보하고 있는 바로 그 성경의 권위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똑 같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믿으면서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믿음이다. 그는 지구의 나이에 대한 (오류가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에 대한 타협은 미국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는 데 기여했고 문화가 세속화 되는 문을 열도록 도왔다. 수십억년과 성경을 타협하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과학자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인하든 하지않든 성경이 말하는 지구와 우주의 역사를 옹호하지 않을 때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성경의 권위를 침식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교회의 기초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진화를 믿지 않는다. 이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저절로 생기는 일이란 없고 원숭이가 자기들의 조상이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학문 분야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 보면 불수록 진화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수십억년은 박물관, 동물원, 역사책, TV, Video, 영화 등 어디서나 쉽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는 6일 동안에 마쳤다는 기록을 보면 성경이 틀렸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진화가 아니라 수십억년이다. 수십억년을 안 믿으면 진화는 믿을 수 없다. 18세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지구의 나이였다. 이것이 날-시대 이론,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이 나오게 된 이유다. 이 배경이 창조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6일 창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다.

지구가 수십억년 되었다는 믿음은 사람들의 믿음에 두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준다. 하나는 창세기의 권위를 훼손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린다. 두 번째는 진화가능성을 정당화해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이란 변명의 문을 열어 놓는다. 수십억년은 시작이다. 성경의 타협이 기다리고 있고 교회의 진정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야기로 가르치는 교회 교육과 사실로 가르치는 세상 교육

수십억년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시작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성경의 권위가 타협되고 교회의 권위는 무너진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러고 있다. 그 증상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회의론자들은 창세기 1:1부터 역사적인 정확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변증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또, 신자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희석하는



위선(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속에서는 수십억년을 믿는 것 등)을 보이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문화적 유연성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게 된다.

교회와 성경은 더 이상 역사과학을 배우지 않는 곳이 되었다. 교회는 그 책임을 포기하고 세상에 맡겨버렸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 도

덕적인 것들, 관계에 관한 것들만 챙기고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현실과 상관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물리적인 실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가? 그럴 리 없다. 따라서 우리는 되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진리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인들에게 한 설교는 같지 않았다. 베드로는 단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였는데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 성도가 되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 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기초를 먼저 제공 한 다음 복음을 증거 하였다. 그가 회개와 심판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 했을 때 몇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하나님과 죄, 율법, 속죄, 메시아 등 믿음의 기초가 든든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와 부활은 어리석은 얘기였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구는 이방인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미국에서도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같았지만 지금은 아테네와 비슷하다. 성경의 개념과 용어들에 대한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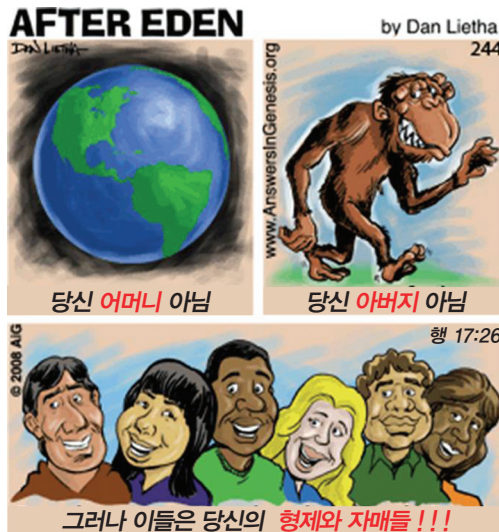
지식이 약화 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유대-크리스천의 유산이 남아 있지 않다. 이미 그런 시대는 갔다. 얼마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얘기는 끝났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나온 말 무슨 상관인가? 난 믿지 않는다. 얘기 끝났다.” 라고 말 할 것이다.

십계명을 교실로 들여 놓고 싶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God loves you.” 라고 하면 “Who is god anyway?” 라고 말 할 것입니다. 한 두 세대 전에는 크리스천의 하나님이란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니? 하나님은 어디서 왔지? 유인원이 있었잖아? 노아가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모았지? 탄소 연대 측정법은 어떻게 생각해?”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세대에서는 빌리 그래함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문화에서 그의 메시지는 예전과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가는 전염병 뒤에는 바로 다른 기초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절반만을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포기해 버렸다. 성경의 권위는 기초다. 이것이 보호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교, 교회, 가정에서 성경의 의미가 이미 없어져 버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옹호하고 실천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선다면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선포 될 때 권위 있게 전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일들을 그들이 믿을 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일들도 믿게 될 것이다.

1. Barack Obama, The Audacity of Hope: Thoughts on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Crown Publishers, 2006); Also in his Inauguration speech.



ACT News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지난 9월 5-7일 노동절 연휴에 LA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안광국)가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LA 온누리교회는 매년 9월 첫 주인 노동절 기간에 탐사여행을 갖고 있습니다.

CRC 목회자 빙하시대 탐사여행

지난 9월 14-16일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 목사님들의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2년 전 CRC 목사님들은 그랜드캐년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에 참석하셨는데, 이번에는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빙하시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노아





요세미티 계곡에서 빙하지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나누며

홍수 후기에서 아담 때까지의 성경기록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하셨습니다. 각 교회 단위로 참석하는 탐사여행과 세미나에 대한 계획도 갖게 되는 기회도 제안하셨습니다.

1차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지난 9월 21-23일 Fuller 신학생들이 그랜드캐년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인데,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학생들과의 탐사여행은 창조과학선교회에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될 신학생들이 신학을 배울 때부터 진화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확인하며 앞으로 사역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간증 참고). 아울러 이런 기회를 주신 ANC 온누리교회에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첫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4차 일본인 탐사여행

지난 9월 28-30일 일본인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된 탐사여행이 이번이 벌써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 번은 House of Siloam(미아가와 목사님)의 주최였으나, 이번은 개인적으로 모집되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인 가초고님께서 모집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과 예수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에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이 탐사여행이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을



알라바마 언덕에서 빙하시대 말기의 강연을 듣고



탐사여행 출발 전에 가졌던 노아홍수 세미나

다짐하며 내년 계획도 세웠습니다. 통역으로 김우실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동시통역사이신 김우실 집사님은 창조과학 세미나를 위한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세미나 handbook까지 세밀하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완벽에 가까운 통역으로 언어의 벽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탐사여행 동안 CGN-TV에서 전 탐사여행 일정을 촬영하여 일본인 탐사여행 홍보에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은 내년에 9월부터 일본 본국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6일 오사카에서 이재만 선교사의 세미나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 중에서

세인트 헬렌산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9월 19일 당일 오레곤 에덴장로교회와 세인트 헬렌산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St. Helen 산은 1980년에 폭발한 화산입니다. 이때 지층, 석탄, 협곡 등 지질학적 모습들이 짧은 시간의 격변에 의해 형성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레곤에서 두 시간 정도 거리였으므로 전날인 금요일 저녁 노아홍수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토요일 하루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탐사여행이 여건에 따라 각 교회의 가까운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학교

9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LA 지역에 있는 대흥장로교회(매주 수요일)와 9월 14일부터 시카고 지역에 있는 삼버그침례교회(매주 월요일)에서 창조과학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9, 10월은 창조과학 세미나로 가득 찼던 한 달이었습니다. 시라큐즈 기쁨의 강 교회(담임목사 이영문), 오레곤 에덴장로교회(원정훈), 토론토 본 한인교회(한석현), 미주리 열방교회(정창현),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최재원), 등에서 세미나가 열렸으면, 10월에도 텍사스 맥알렌 한인교회, 유타 교역자 협의회, 유타 대학총교회, 토론토 성산교회, 미주 두란노, 샌디에고 한빛교회, 인랜드 순복음교, Great Harvest Church, 안디옥 장

가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헬로침교회 단기선 교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이동웅 박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5일간 과테말라 제2의 도시 깨살떼낭고시와 살론 시터를 중심으로 Rafael Landivar 공과대학,

Pestalozzi 전문대, Aqua Viva 신학

대, 페스타로치 고교, New Nation고교 등에서 수 천명에게 창조과학세미나를 통하여 성경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2개 대학과 5개 고교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실시한 후 2년 만에 현지 교회 우발도 목사님과 최상득(시카고 헬로침교회 파송)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다시 이뤄졌습니다.

이재만 선교사 한국과 일본방문

이재만 선교사는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학생 탐사여행

2010년 1월 4-6일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70입니다. 선착순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관 전쟁 6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력인가?(2)

돌연변이의 종류

생명체에게 유익한 돌연변이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는 돌연변이가 새로운 기능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DNA 가닥에는 어떤 단백질들을 만들지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TGC, ATC, GAT, TAG, CTC처럼 세 글자마다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여러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 한 개를 만들게 된다. 그 DNA 가닥의 개념을 쉽게 보여 주기 위해 영어 문장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세 글자 단어들로 된 DNA 조각을 뜻한다:

The car was red. The red car had one key.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위 문장에 다음 여러 형태의 돌연변이를 적용하여 보면 언제나 원래 정보가 손실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빨간 부분이 돌연변이 된 부분이다.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s)의 경우

The car was red. The red **cat** had one key.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The car was red. The red **caa** had one key.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도치 돌연변이(Inversion Mutations) 의 경우

The car was red. **Yek eno dah rac der eht**.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삽입 돌연변이(Insertion Mutations)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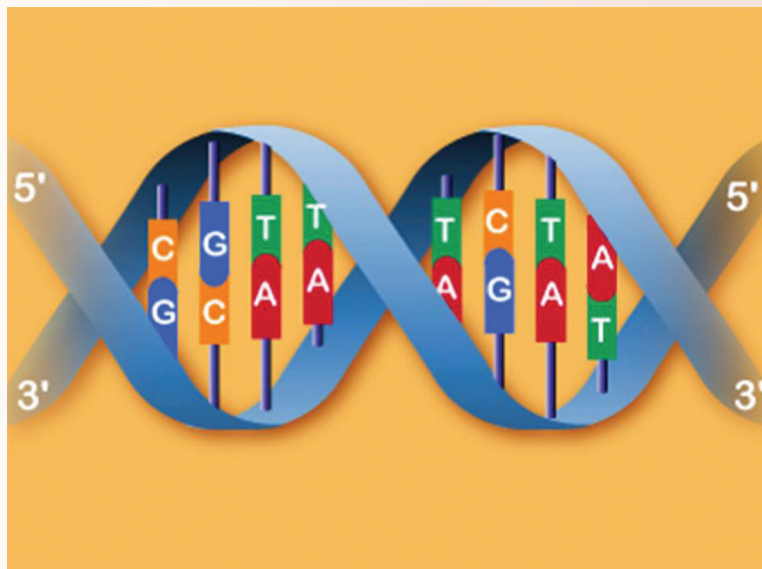
The car was red. The red car had one key. **Had**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삭제 돌연변이(Deletion Mutations)의 경우

The car was red. **두 번째 문장 삭제 됨** The key has one eye and one tip.

격자이동 돌연변이(Frame Shift Mutations)의 경우

The car was red. **Tth ere dca rha don eke yth eke yha son eey ean don eti p.** (t 삽



이 생체 정보는 5' 에서부터 GCA ATC TA... 순서로 읽히게 된다.

입의 결과)

The car was red, Her **edc arh ado nek yet hek eyh aso nee yea ndo net ip**. (두 번째 문장의 T가 삭제 된 결과)

돌연변이의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점 돌연변이가 원인인 조로병 허친슨-길포드 프로제리아 증후군(Hutchinson-Gilford progeria syndrome)¹; 도치돌연변이 결과인 A형 혈우병 관련 인자 VIII(Factor 8); 삭제 돌연변이 결과인 근무력증(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과 척수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²: 격자이동 돌연변이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기능이 없게 되므로 생명체에게 해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유전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의 기본 사항들로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정보는 발생되지 않는다.³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저자: Bodie Hodge

출처 :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 이 책의 다른 부분은 www.HisArk.com의 “세계관 전쟁”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1. Hodge, B., One tiny flaw and 50 years lost, Creation 27(1):33, 2004.
2. Athena Diagnostics web site, www.athenadiagnostics.com/site/content/diagnostic_ed/genetics_primer/part_2.asp
3. 특정 돌연변이와 좀 더 복잡한 예들을 보려면, www.AnswersinGenesis.org/mutations를 보라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간증문

(9/21 - 9/23, 2009)

ANC 은누리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영향력을 줍니다.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세상 학문이 가져다 준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 믿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제대로 근거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ANC 은누리교회의 후원으로 풀러 신학교 창조과학 탐사여행 기회는 본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설교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늘샘교회, 김형구 목사

잠자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탐사여행을 망설였습니다. 예상대로 이틀 밤을 설쳤지만,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명확한 설명을 들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창조에 대한 확신이 서며, 동시에 진화론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많은 생각들과 사실, 비교 지식들을 한 자리에 담아 집으로 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박 3일은 잊지 못할 기억이며, 지인들에게 이 탐사여행을 강력히 추천할 것입니다. 끝으로 2박 3일의 탐사여행이 더욱 귀한 여행이 되도록 후원해주신 ANC 은누리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노은성 목사

이번 탐사여행을 저렴하게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ANC 은누리교회와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창조과학선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매 강의와 일정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믿었으나 최상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경을 힘있게 진리임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반석 전도사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관광여행이 아니라 “창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어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너무나 막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오고 싶은 여행으로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후원해주신 ANC 은누리교회에 감사 드리며, 2박 3일 동안 열강하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이번 탐사여행에 참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은애 사모

저는 이전부터 창조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과학적 지식이 약해서 제대로 이 진리를 증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창조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성지순례보다 오히려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할 생각입니다. 이 탐사여행에 거액의 물질을 지원해주신 ANC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무명

먼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인류 세상 창조를 머리 로만 알았는데 이 탐사여행을 통해 실제로 증거를 봄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 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이 진리이며, 모든 것의 해답임을 믿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탐사여행이 발전하고 계속되 어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며 이 탐사여 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ANC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무명

오늘날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하나님의 성질 즉 성경과 진화의 선택의 문제이다. 신학생 으로 여러 신학이론들을 접하게 된다. 나는 이 탐사여행을 통해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전환점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 탐사여행을 기획하신 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드린다. ANC 온누리교회를 비 롯한 전 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한다. -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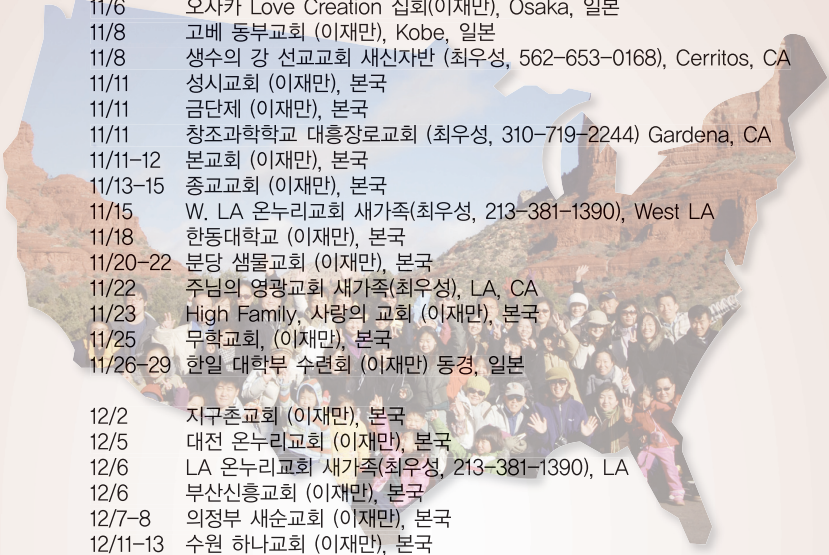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꼭 오고 싶었는데 풀리 신학교를 온지 1년째 되는 이 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ANC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진화론을 믿는 지체들을 만나 사실 놀랐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말씀을 골라서 믿는 것에 놀랐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말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고 웹 사이트도 알려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과 과학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Soli Deo Gloria! - 무명

말씀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익했고 도전이 되었고 무엇보다 과학적 배경 아래서 말씀을 풀어 주셔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답을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이리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길 바라고, ANC 온누리교회와 유진소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과학 선교회가 더 발전하길 바라고 2박 3일 동안 이제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 무명

알게 모르게 젖어 들었던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깨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증거가 없으면 전하기 또는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창조가 사실임을 눈으로 보 고 깨달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무명

●지면 관계상 실지 못한 전체 간증은 홈 페이지 『ACT 간증』 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ACT Schedule

- 
- 11/1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최우성, 213-381-1390), LA
 - 11/4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1/4 독산동교회 (이재만), 02-802-1190, 본국
 - 11/6 오사카 Love Creation 집회(이재만), Osaka, 일본
 - 11/8 고베 동부교회 (이재만), Kobe, 일본
 - 11/8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 11/11 성시교회 (이재만), 본국
 - 11/11 금단제 (이재만), 본국
 - 11/11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1/11-12 본교회 (이재만), 본국
 - 11/13-15 종교교회 (이재만), 본국
 - 11/15 W.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최우성, 213-381-1390), West LA
 - 11/18 한동대학교 (이재만), 본국
 - 11/20-22 분당 샘물교회 (이재만), 본국
 - 11/22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1/23 High Family, 사랑의 교회 (이재만), 본국
 - 11/25 무학교회, (이재만), 본국
 - 11/26-29 한일 대학부 수련회 (이재만) 동경, 일본
 - 12/2 지구촌교회 (이재만), 본국
 - 12/5 대전 온누리교회 (이재만), 본국
 - 12/6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최우성, 213-381-1390), LA
 - 12/6 부산신흥교회 (이재만), 본국
 - 12/7-8 의정부 새순교회 (이재만), 본국
 - 12/11-13 수원 하나교회 (이재만), 본국
 - 12/19-20 라스베이거스 하나교회 (이재만), NV
 - 12/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858-874-2412), San Diego, CA

2010년

- 1/4-6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1/4-1/15 월드미션대학교 강의 (최우성, 323-823-4629), L.A, CA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